

CREATION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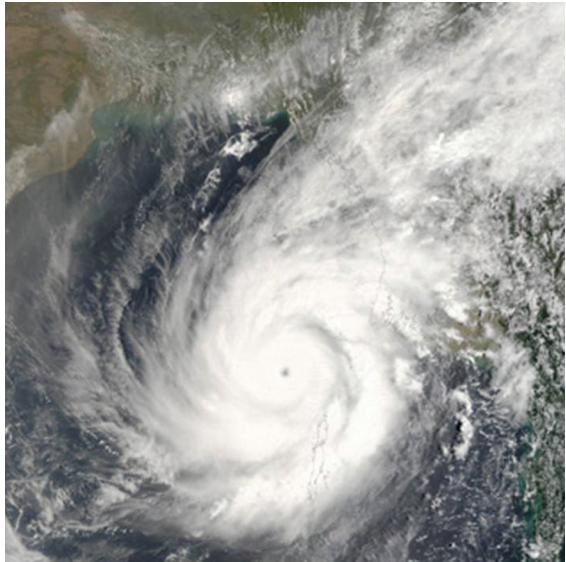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7 • 7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미얀마의 사이클론, 중국의 강진

널 뺀지 위에 싸늘하게 놓인 자식의 주검, 곁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와 한 가족!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슬픈 사진이다. 지구촌에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2008년 5월은 강풍과 강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해 그 충격이 더욱 컸다. 아직까지도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을 것이다. 끔찍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노아홍수에서 파생된 사이클론 나르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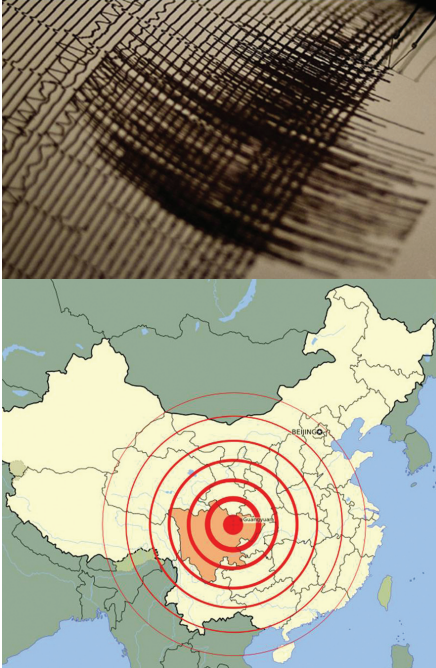
초대형 강풍은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생하여 한반도와 동남아에 영향을 미치는 강풍은 태풍(Typhoon), 태평양 북동부와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는 사이클론(Cyclone)으로 각각 불리고 있는데 모두가 열대성 저기압이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을 1-5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강한 5 등급은 250 km/h 이상으

로 5 m 이상의 파고를 만들게 된다. 이 5 등급에 속하는 최근 강풍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2005년)와 한국의 매미(2003년)가 있고 최근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4 등급(210-150 km/h)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강풍의 형성 과정은 아직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온의 변화가 주 원인이다.

성경은 노아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14; 8:22). 이 이유를 다수의 창조과학자들은 덮개 효과(canopy effect)로 설명

하는데, 창조 2일째 형성된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 온실과 같은 균일한 기온을 가졌던 홍수 이전 지구에 비해 노아홍수 이후에는 궁창 위의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기온 차이는 공기의 밀도를 바꾸게 될 것이므로 결국 바람이 되고 기온 차 크기에 따라서 사이클론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번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원인도 노아홍수라는 것이다.

한편 지진의 대부분은 지판들이 서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지진의 피해는 지반의 진동과 토양액화에 따른 구조물들의 파괴와 산사태, 화재, 쓰나미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들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는 1556년 중국 산서성의 지진으로 83만 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도 1923년 동경 지진은 14만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지진 피해보다는 화재 피해가 더 컸다고 하며, 최근 2004년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발생한



노아홍수에
근원을 둔
사천성의
강력한 지진

쓰나미도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기억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다. 바로 지난 5월에 발생해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 사천성의 지진(진도 7.8)도 지각의 움직임으로 설명된다.

도대체 지각은 왜 움직이고 있을까? 성경은 노아홍수 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현재 물의 양으로 보아 평균 약 2700 m 깊이로 잠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수많은 지층, 화석, 석탄 등은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 일부이다.)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은 마른 땅을 드러내기 위해 한 곳으로 모였는데 성경은 이 현상을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시 104:8). 이 때 발생한 장소가 바다이다. 노아홍수 당시 파괴된 지각들을 쌓아놓았던 아프리카와 남미의 지판이 갈라져 나가 대서양을 만들었고 아프리카 동부에 있었던 인도 대륙은 아시아를 향해 돌진하여 부딪히게 되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게 되었다. 그 판들이 움직일 때 물은 이 틈 사이의 거

대한 분지로 모여 대양분지(oceanic basin)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판구조론의 설명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판들이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빨리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 이 움직임이 지진이나 화산의 물리적인 힘의 근원인데 이 역시 노아홍수가 원인이다.



이번 재해로 드러난 표면적 아픔과 고통만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역사를 통해 그 사건들을 보게 된다면 그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옛새 동안 이 우주를 심히 보기 좋게 만드셨다 (창 1:31). 거기에는 미얀마의 사이클론도 사천성의 지진 같은 것도 없었다.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성경은 죄가 이 좋은 세상을 망쳐 놓았다고 말한다. 약 4500년 전 노아홍수로 좋았던 지구가 멸망되었고 (벧후 3:6)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롬 8:22).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두 죄로 망가진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때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노아를 놀리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실수했다는
것(they were
'all wet')을
알게 되었다.





빙하시대와 매머드

빙하시대와 동토에 묻혀있는 매머드의 수수께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빙하시대가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지표에 다량의 물이 있어야 하며 증발이 용이한 조건, 2) 눈을 내릴 수 있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3)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다음 겨울을 맞을 정도의 선선한 여름.

위의 조건들은 노아홍수에 이어서 빙하시대가 시작했을 것이라는 모델과 잘 맞아 떨어진다. 노아홍수로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땅은 융기하며 바다는 가라 앉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바다로 모이게 되었다. 이때 바다가 낮아지며 확장될 때 지구내부에서 나온 용암이 해저에 깔리게 되었다. 이때 용암에 접한 물은 온도가 올라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이 증발되었다. 한편 깊음의 샘이 터질 때나 화산이 터질 때 형성된 화산재는 공중에 올라가 햇빛을 차단함으로 낮은 대기 온도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홍수 직후의 초기 빙하시대가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은 연속되는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1883년의 크라카토아 화산폭발로 인해 3천만 내지는 1억 톤의 먼지가 성층권으로 올라 갔다고 한다.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고 수년 동안 계속했다고 한다. 1815년의 탐보라 화산폭발로 인해서는 뉴잉글랜드, 캐나다, 유럽에 2년 동안 추운 여름과 특별히 추운 겨울이 있었다. 한 개의 화산폭발로 인한 기후 변화는 대개 5년 동안 계속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빙하시대의 초기에는 북극의 해수가 따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한 겨울의 북극 해상의 온도는 섭씨 20-40도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홍수 직후는 온화한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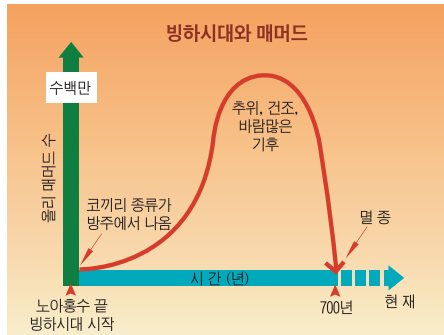
과 서늘한 여름 날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내륙온도는 해상의 온도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서서히 얼음으로 덮이게 되었다. 그러나 얼음이 얼지 않는 남쪽은 온화하여 동식물의 번성이 왕성했을 것이다.

방주를 나온 한 쌍의 동물이 1년 만에 두 배가 된다면 25년 만에는 6천 7백만 마리, 30년 만에는 2조 마리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로 볼게 된다. 창조주간에 만들어진 각 종류는 세월이 감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다양성을 보이게 되고 그 중 열대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 적응하는 동물들은 따뜻한 곳을 찾고 서늘하거나 추운 날씨를 좋아하는 동물들은 그들대로 추운 곳으로 이동하여 위도에 따른 적당한 분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코끼리는 15살이 되어야 새끼를 가질 수 있다. 십년에 두 배로 불었다고 해도 300년이면 20억 마리가 되었을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본격적인 빙하시대는 홍수 이후 200년 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이미 수많은 코끼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군다나 매머드는 코끼리 종류로 여겨지는데 빙하가 녹기 시작할 때까지 500년 걸렸다면 정말 많은 수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중 긴 털 매머드는 과연 빙하시대의 동물이었는지 혹은 홍수에 의해 매몰된 동물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빙하시대의 동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그 이유는 북아메리카, 북유럽, 아시아, 시베리아의 매머드는 깊이 묻혀 있지 않고 모두 표면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긴 털 코뿔소, 호랑이, 들소, 말, 순록, 사향소, 영양, 그리고 동굴에 사는 사자 등과 함께 발견된다. 특히 시베리아 북쪽의 섬이나 베링해 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수의 온

도가 내려가서 평균 섭씨 10도가 되면 해수증발의 감소로 구름이 적게되고 이제 햇빛이 많이 통과되어 빙하가 녹게 된다. 겨울은 더 짧게 되고 여름은 덥게 되어 얼음은 녹게 된다. 건조하고 바람이 센 폭풍우가 시작되고 빙하의 녹은 물은 강을 범람하여 바다와 강둑을 깊이 파게 된다. 생태학적 변화는 많은 동식물의 멸종이나 또는 남쪽으로의 이동을 강요하였다. 실제로 빙하시대의 해빙은 아주 빠르게 일어났을 것으로 보는데 몸집이 유난히 둔한 긴 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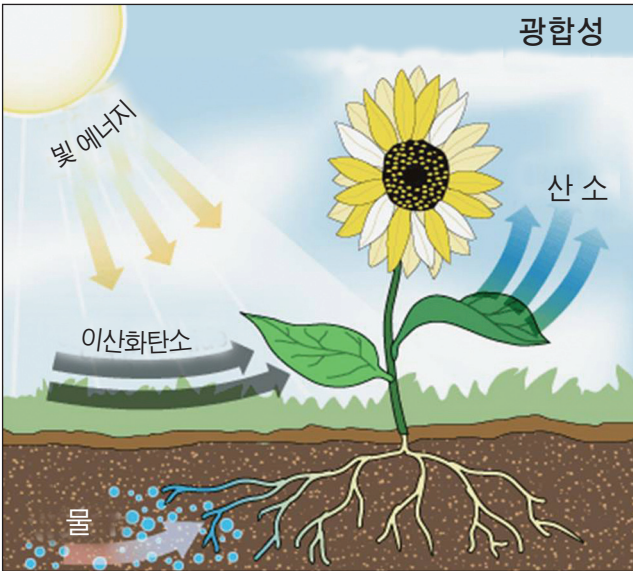
매머드는 달아나지 못하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동굴에 갇혀 그곳에서 기아로 죽거나 세찬 먼지폭풍에 파묻혀 멸종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갑자기 닥친 폭풍에 쓰러진 매머드들은 그대로 냉동되어 지금도 이따금 동물들에 발견되어 뜯어 먹히거나 여름의 녹은 물에 씻겨 노출되곤 한다. 어린 매머드의 배안에는 소화되지 않은 미나리아재비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위의 성경적 모델은 빙하시대의 조건과 매머드 화석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타당하다. 다른 지질학적인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빙하시대 역시 창세기 대 홍수 사건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동일과정설에 의해서는 이 중의 한가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최인식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
의사

특별히 구별된 **식물의** 독특성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2)” 하나님께서 11절에 식물을 창조하셨으며 12절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준다.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의 녹색세계는 하늘의 푸른색만큼이나 우리에게 친근하다. 그 녹색세계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했던 어

떤 복잡한 공장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녹색 잎들은 믿을 수 없이 많은 것을 생산한다. 매년 수십억 톤의 당, 탄수화물, 섬유질, 산소 등을 생산한다. 놀라운 것은 녹색 잎이 이러한 것들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빛, 이산화탄소, 물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들 원료를 통하여 동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생산한다. 식물과 동물은 이러한 틀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한다.

어떻게 이들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지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백 년 전에 Joseph Priestly는 식물과 함께 작은 동물을 입이 막힌 병 안에 가두어보았더니 이 동물은 오래 살았다. 반면에 식물 없이 혼자 가둔 것은 금방 죽는 것이었다. 그는 식물이 공기 중에 호흡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Jan Ingen-Housz는 추가로 실험한 결과 빛을 받을 때 그것도 잎의 색깔이 녹색일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현대 생화학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효소라는 아주 복잡한 생물촉매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바로 식물이 빛을 사용하여 산소와 당류를 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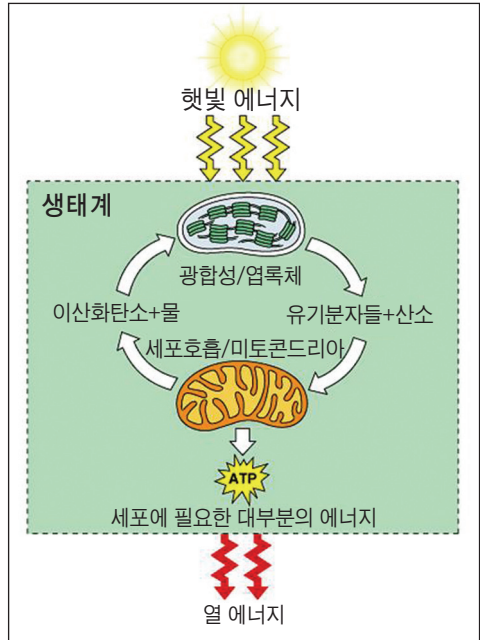
광합성 작용이다. 광합성의 화학변화는 놀랄 정도로 단순하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산소를 사용하여 당류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데 이를 호흡이라고 한다. 이 광합성과 호흡은 아주 잘 균형이 잡혀있다. 최근 발명된 전자현미경은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호흡과정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복잡한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 즉 빛을 획득하여 산소와 당류를 만들도록 진화되었다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몇 개의 분자들이 모여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며 수많은 분자들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야 한다.

식물은 아주 독특하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식물과 동물을 진화론적 관계성을 통해 연관시키려고 애쓴다. 식물세포가 신진대사적인 에너지를 산출하는 구조와 반응을 갖는 것이 동물과 비슷한 점이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위한 특이하고 복잡한 과정을 갖고 있다. 식물은 머리가 없다. 아직도 식물이 어느 부분에서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는지 어떤 과학자도 모른다. 동물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관을 갖추지만 식물은 처음부터 꽃이나 열매를 갖지 않는다. 성장에 관한 것조차도 식물은 분열과 생장에 의해서 일어난다. 식물들은 양식의 근원으로 태양빛을 사용한다. 그들의 생명과정은 동물과는 전혀 다르다. 식물과 동물을 연결시키려는 진화론적 접근은 언제나 더 큰 문제점만을 보여준다.

진화론자들은 원시대기를 산소가 없는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원시대기에 산소가 없으면 오존층이 없으므로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은 단파들에 의해 식물들은 살 수 없게 된다. 진화론자들의 원시대기 모델은 과학적 사고라기보다 진화론적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식물의 창조를 보더라도 시간이 들어갈 틈이 없다. 시간을 늘이면 늘일수록 수많은 비정상적인 가설만이 필요할 뿐이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롬 1:20)만을 보여준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 지역소식 | 미국 창조과학 소식

한 달을 가득 채웠던 탐사여행

5월은 가히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총 여섯 차례의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만 해도 총 300명이 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성경대로 행하신 일에 확신하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4/28-5/1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는 벌써 다섯 번째 탐사여행입니다. 지난 11월 창조과학학교에 이어 매년 탐사여행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형제교회에서 열리는 “우리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도 탐사여행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에도 창조과학 시애틀 형제교회의 노아홍수 탐사여행(그랜드캐년에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5-8 꿈의 교회(안희목 목사)는 본국의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교회의 리더인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팀이 이루어졌는데, 탐사여행 이후에 앞으로 교인들 뿐 아니라 교육의 중심인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도 탐사 여행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5/14-16 동양선교교회(강준민 목사)와 월드미션대학교가 소속된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는 연례 총회 후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가셨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총회 참석 후에 가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의 빙하시대 탐사여행(Alabama Hills에서)

지셨다는 점, 빙하시대 탐사여행으로 진행된 점, 그리고 처음으로 2 대의 버스가 동원되어 진행된 점들입니다. 최우성 선교사는 처음으로 이재만 선교사와 함께 탐사 여행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서 배웠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아는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 왔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강준민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 편 드는 창조과학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창조과학이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오는 11월 말 Thanksgiving 휴일에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갖습니다.

5/19-22 가정교회로 유명한 휴스턴 서울교회(최영기 목사)는 작년에 이어 이번



LA 온누리교회(ANC)의 노아홍수 탐사여행(그랜드캐년에서)

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이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운 100도가 넘는 기온이었지만, 나중 이들은 평균보다 훨씬 추워 Bryce Canyon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게 하신 탐사여행이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오는 10월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4-26 메모리얼 주말 LA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의 탐사여행은 한 해의 연중행사입니다. LA온누리교회는 2000년 2월 탐사여행을 시작하게 한 교회입니다. 그 후로 매년 참석하여 벌써 열 번이 넘었습니다. 올해 7월 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탐사여행과 8월의 둘째 주의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단위로 탐사여행을 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5/29-31 맨 마지막 5월을 장식하는 글로벌 선교교회(김지성 목사)는 교회 행사로 탐사여행을 처음 출발했습니다. 지난 3월 창조과학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지구과학에 관한 컨퍼런스

오는 8월 3-7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는 창조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의 기초, 생명과학, 천문학, 지구과학,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학계 인사

시카고 출발 제 2차
AIG 창조 뮤지엄 견학 및
오하이오리버 화석 탐사
여행이 7월 4~5일 헬로
십교회에서 준비되고 있
습니다(인도 | 이동용 박
사, 문의 | 배부일 장로
847 845 5368)

들이 검증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브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순서” “전기 동력학적 중력의 기원” “빅뱅: 사실인가 사기인가?” “Radiohalos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과연 영원한가?” 등의 초록들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국제학술대회는 젊은지구를 지지하는 검증된 논문들이 발표되는 곳으로 자세한 정보는 www.icc08.org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 5차 유학생 탐사여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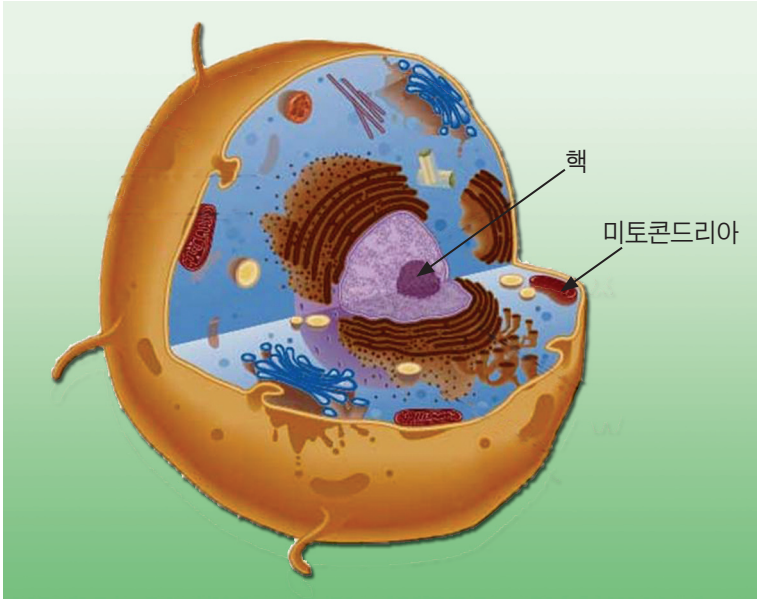
서울 온누리교회의 “유학생교회 선교회”와 얼마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유학생 탐사여행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분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70.00) 혜택은 유학생과 담당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며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일시: 2008년 8월 4일(월) – 6일(수)
- 경유지: Las Vegas / Mojave Desert / Sedona /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 Grand Canyon

참석 희망자는 www.HisArk.com의 ACT News란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선교교회의 노아홍수 탐사여행(페인티드 사막에서)



이브의 DNA

국 창조과학연구소(ICR)의 Criswell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마치고 오는 여름 창조론 국제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발전소에 해당하는데 이 속에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자녀에게 전달 되는 작은 DNA가 존재한다(사람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에는 16,500 개의 DNA 염기가 존재하는데 반해 세포 중심부의 핵 속에는 30억 개의 DNA 염기가 존재함). 이번 연구 결과는 이 DNA가 핵 속의 DNA에 비해 돌연변이 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의 차이가 예상 밖으로 작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밖에 안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러 가지 인류 기원 모델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은 아프리카 기원 가설인데 성경적 관점과 상충하는 가정들과 여러 가지 중요한 학술적인 문제점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다. 첫째는 각 씨족을 통해 3 종류의 미토콘드리아가 한 번에 흩어지게 된 점이며, 둘째는 그 흩어짐이 오래되지 않은 중동에 중심을 두고 있고, 셋째는 그 흩어짐이 본질적으로는 작은 집단이 예전에 사람이 살지 않던 곳으로 밀려 갔다는 것, 넷째는 유전적인 증거들이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여성의 이동이 남성에 비해 8 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며느리에서 비롯한 미토콘드리아 DNA와 가부장적인 구분에 의해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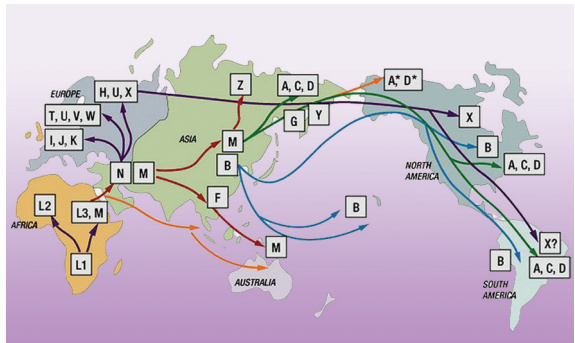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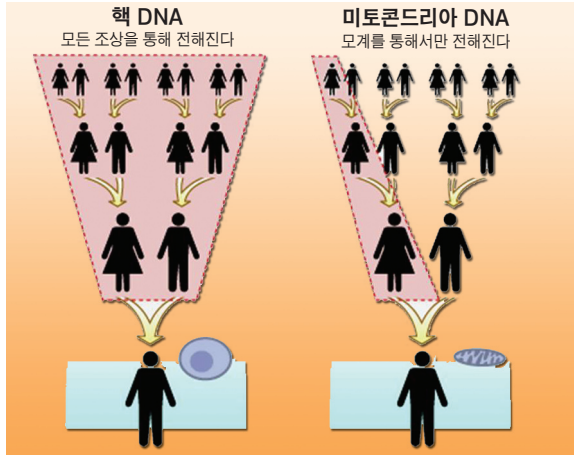
섞여 있던 인구가 갈라져 남자의 섞임은 적어 보이지만 세 여자의 가계로 보면 더 심하게 섞여져 이동해 갔음을 보여 준다.) 진화론적인 연구들에서 얻어진 이런 데이터는 성경적인 모델과 아주 잘 맞고 있다.

ICR의 연구팀은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 827 개의 사람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순서들을 확보하고 변화를 연구하여 Eve 1.0이란 DNA 염기 공통배열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그 팀은 ICR에서 개발한 수학적 프로그램(시간이 지나면서 전 인구에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것을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멘델의 설명”을 사용하여 사람 미토콘드리아의 유전학적 역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염기 순서들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 미토콘드리아 유전정보의 83% 이상은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가 일어난 부위의 99% 이상에서 특이한 변화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에서만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뿐 아니라 희귀하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사람 미토콘드리아 DNA는 원래 이브의 염기 (DNA 알파벳의 글자에 해당) 순서와 21.6 개가 다른데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 16,500 개 이상의 염기들과 비교하면 이 수(약 1.3%)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Eve 1.0의 염기순서는 원래 즉 첫 번째 여자이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인 이브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순서와 거의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유전정보는 돌연변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가 적다는 사실로부터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정보가 오래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완전한 논문(The “Eve” Mitochondrial Consensus Sequence)은 오는 2008년 8월 펜실바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릴 제 6차 국제 창조론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기원설에 근거한 인구 이동 예상 경로. 중동으로부터 3가지 형의 미토콘드리아 그룹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arry Vardiman / Ph.D., ICR Director of Research
출처: ACTS & FACTS May 2008, p.6.

창조과학 강의를 마치며

창조과학 강의는 나의 Core Value를 계속 두드렸고 그것은 아내, 나의 world view를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 너무스럽다. 그렇다는 표현은 경험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난 후 전에 느꼈던 감정을 또 느끼고 싶을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때의 그 완벽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경험했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치 어떤 거북이가 알을 낳고 돌아가면 새끼 거북이들이 알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의 망가지기 전의 지구로 돌아가고 싶은 맘이 간절하다. - 정주연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던 노아홍수가 지금까지 내게는 성경의 한 구절에 불과했었으나 창조과학을 통해 노아홍수와 후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사건들 알게 된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 이용자

학교에서 배운 지구의 오랜 나이와 화석 등의 설명이 진화가설이었음을 배우며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믿을 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성이 슬퍼진다. - 차세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 하셨다, 아니다를 놓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읽고, 믿었고, 또한 나름대로 내가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두 개의 사고를 마찰 없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과학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몰랐고 생각도 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정성희

공룡은 단지 진화론자의 이론 주장의 도구로 또는 환상의 동물로 인식해 왔는데 공룡이 인간과 얼마나 친숙하게 있었고 함께 있었다는 것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룡이 진화론자들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창조론을 증명하는 새로운 소재가 되었다는 것에 기쁘다. 처음 특강에 임할 때 가졌던 마음은 증명되거나 사실로 밝힐 수 없는 일들을 이론적으로만 주장하여 믿음으로만 나아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화론적인 발상과 이론과 사상들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이 진화론의 전유물이 아니라 창조론과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힘이 되리라 믿는다. - 김기중

이웃에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에서 길게 잡아 10,000년이라고 하면 코웃음 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한다. 무어라고 설명해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 굳어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우리들의 숙제이며 사명감 같은 것이 밀려온다. - 케빈라

“창조와 과학” 특강을 통하여 생명의 기원에 관한 믿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목적,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주님께서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많은 과학적 증거들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기적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 박윤우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과학자는 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과학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바른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진화를 배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들이 그냥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 이해봉

2008년 ACT Schedule

6/5-7	흰돌선교회 (세미나, 최우성, 213-718-1950), LA, CA
6/8	선한목자 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617-285-3528), CA
6/9-1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425-488-1004)
6/13	Irvine 온누리교회 KM 청년부 (세미나, 최우성, 714-290-5165), Irvine, CA
6/13	벨리 성경교회(세미나, 이재만, 818-621-1567), LA, CA
6/15	터헝가 소망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818-331-2481), CA
6/16-6/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장안제일교회, 213-381-1390)
6/29	동부연합감리교회 (세미나, 이재만, 909-969-4133), CA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에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7/4-5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 (시카고출발-AIG뮤지엄, 중부팀, 847-845-5368)
7/8-7/11	창조과학 탐사여행 (에브리데이교회, 818-832-6628)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헝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7/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GM 사역부, 818-249-3139)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8/4-6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6-17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 (세미나, 최우성, 334-954-9055), AL
8/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셔/앨버틴/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5-7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422-4939), CA
9/12-27	몽골 국제대학, 캄보디아, 본국 (세미나, 이재만)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10/13-16	빙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10	동양선교교회(평생 학습원, 이재만), CA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12/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858-733-1129)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